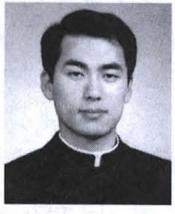


## 강론 ...

### 하느님께서 창조에 맺어준 사건, 혼인



백승호 신부  
(솔내청소년수련관장)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드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느님이 어떻게 명하셨는가를 묻지 않고,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는지를 물으심으로써 바리사이드의 완고함을 경고하십니

다.

사실 바리사이드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에는 아내를 버려야하는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리사이드들은 신명기를 인용하면서도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신명 24,1)”라는 이유를 생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사이드들이 마치 자기들이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의 완고함을 경고하십니다. 하느님께서 혼인에 대하여 본래 원하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완고함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은 모세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명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협력자 관계를 맺고 있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남자와 여자의 이런 일체의 관계를 인간이 갈라놓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로 창조하시어 인간이 서로를 향하여 내면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셨고, 그 바탕에서 서로 창조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신 것은 ‘둘’의 개성을 죽인 ‘하나’를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둘’을 없애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창조의 첫 순간으로 이끌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상대의 삶과 뼈를 자기의 삶과 뼈로 느끼는 데서 모든 이기심을 물리친 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맺는 계약에는 인간의 완고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이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혼인은 단순한 인간들이 맺는 계약을 넘어 창조적인 일입니다. 창조적인 일에는 헌신과 신뢰와 사랑이 근원이 됩니다. 이것이 혼인의 바탕입니다.

## 숲머리 생각

### 대바구니로 빈 독에 물 채우기

부어도, 부어도,

물은  
더디게  
채워지지만

대바구니는  
깨끗해집니다.



문정섭  
(베드로)

# 자비를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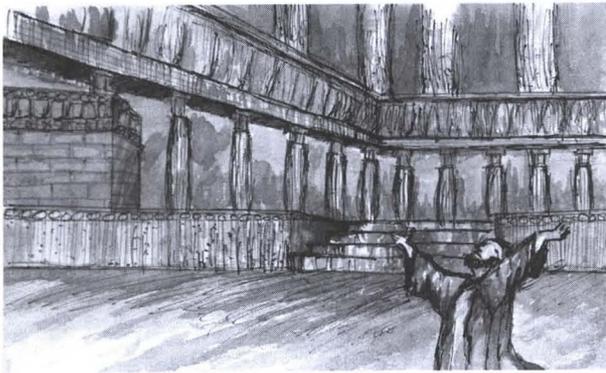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분당 주임

“나의 하느님여, 이 몸이 이 백성을 위해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잘 보살펴 주십시오!”

(느헤 5,19)

느헤미아는 황제의 칙령으로 유다 총독이 된 사람이다. 그는 총독 직분을 황제로부터 받았지만 이미 하느님의 섭리와 선택이 있었다. 예루살렘 성수축이 그의 목표요 백성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들도 잡았던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을 당장 돌려 주도록 하시오.” 느헤미아의 설득과 요구 앞에 관리들이 수긍하였다. “말씀대로 돌려 주고 변리를 거두어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서약을 하였고 서약한

이 받은 사명이었다. 느헤미아는 다스리는 총독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하느님의 종이였다. 그는 총독으로서 받는 녹도 타지 않고 오직 성벽수축에만 힘을 기울였다. 부역과 고통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충정이 모두에게 통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부유층과 지도계급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민감했고 부를 늘리기에 열중했다. 변리와 저당으로 서민들의 형편이 비참해졌다. 포도원과 집이 저당 잡히는가 하면 아들 딸들이 종으로 팔리는 경우도 있다. 백성들 속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고귀한 성벽을 쌓는 마당에 착취와 저주스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랴. 느헤미아는 소식을 듣고 관리들을 소집하였다.

“이건 정말 못할 짓이오. 다른 사람들에게 욕이라도 얻어 먹지 않으려면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할 것이오? 우리 일가는 모두 변리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대

대로 지켰다. 백성들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공사에 매진하였다.

느헤미아는 하느님의 일에 열중하였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 놓으며 성을 쌓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백성들도 잘 따라주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었다. 그는 하느님 앞에 감사드리며 기도하였다. “나의 하느님여, 이 몸이 이 백성을 위해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잘 보살펴 주십시오!” 감사 기도이자 자비를 구하는 기도이다. 인간의 업적이 하느님 앞에 공로가 될 수는 없으나 그분을 향한 마음의 충정이 애뜻하기 그지없다.

하느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필요하다. 사람은 마땅히 이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자격만큼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이룬 업적이 아니라 그 동안에 보여준 믿음의 충정이다. 느헤미아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 박종구 (바드리시오)

## 고향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 끝났다. 고향에서 차례를 모시고 성묘를 하며 가족, 친지들과 음식과 정담을 나누고, 언제 봐도 반가운 고향 친구들과 이야깃거리를 나누고, 피우던 귀성객들이 쓸물처럼 도시로 떠났다. 그리하여 이삼 일 동안 집집마다 분주하고 골목마다 활기차던 고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깊은 적막에 쌓였다.

고향의 일상을 지배하는 적막함은 사람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뛰어놀지 않는 고향은 생기가 없다. 젊은이들이 떠난 고향은 희망이 없다. 북망산이 머지않은 늙은이들이 지키는 고향은 묘지처럼 고요하다.

각박한 도시에서 귀향하거나 귀농한, 배움이 있고 땅이 있고 경쟁력 있는 젊은이들은 나랏문을 활짝 열어젖혀도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만 힘없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 손바닥만한 땅에 었디어 애당초 경쟁력이 뭔지도 모르는 늙은이들은 외국농산물의 파도에 그저 허우적거리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자유무역협정 등 뭐가 뭔지 모르는 세계화 덕분에 쌀을 비롯한 온갖 농산물이 다 무너져버리자 한 뼉이라도 더, 한 포기라도 더 심으려고 기를 쓰던 고향 논에는 벼 대신 피가 자란다. 목화, 밀, 보리, 콩 등이 철따라 출렁이던 고향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다. 그뿐이라. 한때는 갓난아이가 아장아장 거닐던 마당과 학생들이 뛰놀던 운동장에도 잡초가 우거졌다. 소몰이 싸움, 냉해 보상 싸움, 물세 싸움 등으로 이른 새벽부터 골골이 쏟아져 나와 신작로를 줄 지어 달려가던 소들의 거친 숨소리. 철통같은 전경들을 물리친 경운기의 힘찬 덜덜거림. 삽과 괭이를 울러 메고 '농민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아보자!' 던 농민들의 분노와 울부짖음도 이제 잦아졌다. 고향은 늙었다.

김인봉(대건안드레아) · 그림 : 황의성(세례자 요한)

## 입당송 에스 4,17 참조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관능 안에 있으며, 주님의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주님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 제1독서 창세 2,18-24

## 화답송 시편 128(127), 1-2,3,4-5,6 (◎ 5 참조)

◎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 제2독서 히브 2,9-11

## 복음 환호송 요한 4,12 나 드

## ◎ 알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 알렐루야

## 복음 마르 10,2-16 &lt;또는 10,2-12&gt;

## 영성체송 애가 3,25

주님을 바라는 이에게, 주님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은 신 분이시로다.

## 예비부부 대상 원만한 결혼생활 준비교육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예전엔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하다보니 과연 해피엔딩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였다. 분명히 사랑하는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라는 문을 지나자마자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과하면 그 순간부터는 '결혼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결혼생활'은 아무런 준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일단 시작하고 보기에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소들이 너무 많다. 요즘 이혼부부의 50%정도가 결혼 1-2년 안에 파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면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비부부들을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결혼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킨다는 의미에서 혼인강좌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가톨릭 안에서 혼인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꼭 거쳐 가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전주교구 혼인강좌에서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한 의사소통방법과 교회혼인법, 신앙 안에서 결혼생활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생명윤리와 성윤리를 배울 수 있다. 또한 낙태를 원천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며, 어떠한 인공적인 피임방법도 허용하지 않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 자연주기법을 따르는 피임강좌도 마련되어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20년 이상을 살아온 두 남녀가 만난다. 살아온 과정뿐 아니라 성격과 가치관, 습관까

지도 다르고, 장점이나 단점 또한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통해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 공동의 목표를 만들고 자녀를 통해 생명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가톨릭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은 인간적인 사랑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징인 성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가톨릭교회 안에서의 혼인은 이제 두 남녀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톨릭 안에서 결혼생활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는 것이다.

혼인강좌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 교구 사목국에서 가정사목을 전담하고 계시는 김정민 나자로 신부님을 만났다. 신부님께서서는 가정의 문제가 사회적 주제가 되고 있는데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핵심을 이루는 부부의 문제이며 이는 혼인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부부관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신다.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는 가정의 핵심을 이루는 부부관계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올바른 부부관계를 맺기 위한 교육이라는 것이 결혼을 앞두고 몇 시간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완전히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신부님은 어렸을 때부터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신다. 앞으로 전주교구의 혼인강좌는 현실에 맞추어 필요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 적용사례들을 알려주는 강좌로 변화될 것이라고 귀뜸 해주신다. 마지막으로 예비부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부탁드렸다.

“문제가 없는 삶이 최고의 삶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통해서라도 성장할 수 있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부부는 없습니다. 결혼생활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은 이를 통해 부부가 한층 성숙되고 발전되는 결혼 생활로 나아가게 합니다.”

김동욱(세실리아)

로사리오 성월 10월을 맞아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희망과 사랑, 겸손과 순명, 그리고 기도로 일관된 삶을 사셨던 성모마리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미디어를 소개한다. {자료제공 : 흥보국}

[영화]

[성화 묵상용]

**나자렛의 마리아** 바오로 딸 | 비디오 | 107 분

바오로 딸 | 비디오 | 1시간 16분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

제작 : 1999년도

이 영화는 '나자렛 예수'에 버금가는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나오며 마리아의 아리따운 모습과 정겨운 나자렛고을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어떤 처지에서도 당당하고 자유로운 마리아, 사랑스럽고 톡톡 튀며 아름다운 마리아와 묵묵한 요셉을 통해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구세사를 보게 된다.

루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신 마리아의 일생이 담겨 있으며 모든 이들이 성모님께 대한 올바른 신심을 갖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묵상기도용으로 제작되었다.



[영화]

[에니메이션]

**파티마의 비밀** 바오로 딸 | 비디오 | 90 분

성 바오로 | DVD | 42 분 **성모님 시리즈**

제작 : 2000년도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양을 치던 세목동들에게 발현하신 성모님에 관한 최신 영화. 예수님을 도와 인류 구원 사업에 협력하신 마리아가 믿음의 어머니로 성숙되어 가는 모습이 진한 감동으로 전해지며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음미하게 된다.

성모님 시리즈는 성바오로에서 출간되고 있는 '성모님의 손발은 왜 거칠어 졌을까?'를 각색한 영상물이다. 성모님께서 정의를 거울, 천사의 모후 등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보살피 주심을 보여준다



1. 겁쟁이 피터와 꼬마영웅 요한 (상영시간 8분)
2. 디디는 악마일까, 천사일까? (상영시간 8분)
3. 잔꽃송이 (상영시간 4분)
4. 찌르는 왜 땅으로 내려왔을까? (상영시간 11분)
5. 성모님의 손 발은 왜 거칠어 졌을까? (상영시간 11분)

[영화]

[영화]

**파티마의 성모** 성 바오로 | 비디오 | 30분

성 바오로 | 비디오 | 30분 **과다루페의 성모**

제작 : 1980년도

1917년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있었던 성모님의 발현을 다룬 영화로 위에서 소개한(파티마의 비밀)

400여년 전 멕시코의 인디언 요한 디에고에게 발현하신 성모님의 영화로 성모님이 테페약 언덕에 대성당을 지으라고 분부하시며 그 증거로 디에고의 망토에 성모님의 모습을 새겨주신 기적을 다룬 30분 영화.



것보다 이전에 만든 30분 영화.

소박하고 순진하기 그지없는 세 어린 목동들에게 나타나시어 공산국가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끊임없이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라고 호소하시는 내용을 담은 영화.

〈파티마의 성모〉와 〈과달루페의 성모〉는 현재 절판되었습니다. 절판된 비디오는 흥보국에서 DVD 또는 DIVX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느티나무 아래처럼

‘숲정’은 ‘본당탐방’ 코너를 신설, 매월 한차례씩 교구내 본당 한곳씩을 선정해 소개한다. 이 코너를 통해 본당의 발자취, 교세현황, 제단체 활동, 사목 방향 등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며 이웃 본당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으로 삼고자 한다.

##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교회 ◆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느티나무 아래로 오세요.  
 신태인 본당 입구에서 있는 느티나무는 이렇게 모두를 향해 손짓하는 듯 하다. 본당의 명물인 50년 된 느티나무는 아름답리 그늘을 만들어 안식처를 제공한다. 그래서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느티나무 아래서 잠시 지친 몸을 맡기며 몸과 마음에 활력을 얻는다. 김봉술(아우구스티노) 주임 신부는 올 봄 담장을 허물어 성당 마당을 지역 공원 화하기로 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교회를 개방하였다. 인구수의 감소와 농업의 쇠퇴로 인한 지역사회에 대한 사목적 배려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 3월에 있었던 ‘느티나무 작은 음악회’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려는 신부님의 열린 사목을 잘 반영해 준다. 소박하면서도 친근한 모습으로 본당 교우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행복과 웃음을 전해주는 문화 선교로서의 몫을 톡톡히 하였고, 올가을(10월 15일)에는 전문적으로 음악 하는 신자들로 구성된 그룹 ‘우리 사랑 나누리’를 초청해 이웃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한껏 누리볼 계획이다. 느티나무 옆에 나란히 서있는, 신자가 직접 지었다는 성물방의 이름 또한 ‘느티나무 아래’이다. 누구나 편히 쉬어가는 느티나무 같은 사랑으로...



## ◆ 본당의 발자취 ◆

77년의 역사 안에 28분의 사제를 모시며 신앙의 단단한 뿌리를 내린 신태인 성당은 1926년 능교공소에서 시작하여 태인 공소를 거쳐 1929년 5월 26일에 지금의 자리(정읍시 신태인을 평화동 546-1)에 본당을 설립하였다. 본당 신자 780여명(8개 구역)과 공소신자 700여명(7개 공소)등 신자 수 1480여명으로 본당 신자와 공소신자의 비율이 거의 같다.

신앙의 뿌리 깊은 역사는 2004년 10월에 발간된 ‘신태인 성당 75년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신앙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교우들의 깊은 신심을 엿볼 수 있다. 본당에는 현재 광주 가톨릭 신학교에 3명의 신학생이 재학하며 사제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 ◆ 사제와 교우들이 함께 이루어나가는 사목 ◆

신태인 본당은 비록 재정적으로 열악한 처지이지만 김봉술 신부는 늘 살맛나는 공동체를 꿈꾸며 부단히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

# 하고 활짝 열린 교회



는다. 그래서 가끔 어려운 재정 때문에 멀리 서울등지의 성당에서 모금 강론을 하신다. 우리 신앙의 뿌리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담긴 강론은 도시 신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신부께 박찬수(마태오)사목회장을 비롯한 신자들은 적극 협조하고 있다. 작년부터 추진된 성당 보수공사와 교육관, 성물 방 건립 등에서도 형제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내일처럼 도와 인건비는 형제들의 노력봉사로 채워졌다. 또한 자매들은 시골 공소의 도움을 얻어 딸기 잼과 복분자를 직접 담가 판매하고 있다. 수십 개의 큰 통에 담가진 복분자주는 정성을 다해서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고 박질옥(테레사)여성부장은 자신 있게 말한다. 이들 모두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 신태인 성당을 구석구석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 ◆ 활발한 어르신 사목 ◆

노인 사목하면 하루 야유회나 노인 대학을 개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김봉술 신부는 작년과 올 여름 어르신들을 위해 큰일을 저질렀다. 평생 농사짓고 자식을 키우며 흙사랑, 자식사랑으로 일생을 지낸 어르신들께 캠프를 준비하여 환한 웃음을 선물하신 것이다. 정읍시 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전문 강사를 초청해 3일간 성당과 부안 고마제 저수지 별장에서 있었던 '제 1회 흙사랑 자식사랑 어르신 캠프'는 본당 뿐 아니라 지역 내 모든 공동체가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하고 값진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한걸음 다가섰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금년 7월에 열린 제2회 어르신 캠프는 '지상에서 천국처럼'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에게 기쁨 가득한 천국을 제공하였다. 캠프를 주관한 김 신부와 교우들은 어르신들께서 캠프 화이어를 통해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워하시는 모습과 서로 안수 예식을 통해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한다.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김 신부는 앞으로 노인 대학 등 노인 복지 사업의 꿈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 ◆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

금년 부활절에 신태인 본당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내용으로 구역별 공소별 복음 성극제를 개최하였다. 대부분 60을 넘긴 나이로 대사를 외우기 힘들었지만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즐거워하였고 구역별로 연습하면서 소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구역·공소의 날로 정하고 구역모임을 갖고 있으며 매월 첫 수요일은 구역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작년에는 교구 농촌 사목의 협조를 얻어 혈액암을 앓고 있는 학생 돕기 바자회를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 ◆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

신태인 성당의 모본당인 능교 공소를 비롯해 7개에 이르는 신태인 성당의 공소는 신태인 성당 신앙의 뿌리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학교가 폐교되듯 공소가 사라져 가는 현실은 마치 나무가 있는데도 뿌리를 잘라버리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하는 김 신부는 공소를 지켜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며 공소 사목에 대한 큰 꿈을 펼치신다. 평생을 일과 기도로 살아온 공소신자들의 '교우촌 영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 신자들과 사제의 과제이며 앞으로 본당의 사활과 미래가 공소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농다리 영성센터' 건립계획을 조심스럽게 펼치신다. 작년 폭설로 붕괴위험에 놓여있는 능교 공소는 신앙의 선조들이 150년 신앙의 뿌리를 눈물겹게 지켜온 곳이다. 또한 근처에 김대건 신부님의 동생인 김난식(프란치스코)과 조카 김현체(토마스)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김신부는 '농다리 영성센터'와 더불어 교구와 연계하여 이들의 묘소 개발계획도 함께 기획하고 있다. 선조들의 신앙을 디딤돌 삼아 더 나은 내일을 가꾸어가는 신태인 본당 공동체는 점차 퇴색해 가는 농촌 공소의 희망을 일깨워 준다.



### 본당 주요소식 미리보기

#### ◆삼천동 성당

성령 묵상회 10월 30일(월)~11월 3일(금)

#### ◆신태인 성당

150년 '능다리 교우촌 영성 센터' 신축바자회

10월 26일(목)~28일(토)

느티나무 작은음악회 : 15일(주일) 오후 1시 30분

#### ◆전동 성당

본당의 날 행사 : 10월 15일(주일)

#### ◆송학동 성당

성령세미나 : 10월 9일(월)~13일(금)

#### ◆마동 성당

본당의 날 맞이 전신자 성지순례

10월 15일(주일) 천진암성지(경기 광주시)

#### ◆팔마 성당

성령묵상회 : 10월 16일(월)~21일(토)

오후 7시 30분

#### ◆지곡 성당

성령묵상회 : 10월 9일(월)~14일(토) 오후 7시 30분

#### ◆용진 성당

성령묵상회 : 10월 9일(월)~13일(금)

을 느낄 수 있었다. 식사 후에는 순교자 103위 기념성당과 갯세마니 동산 등을 돌아보며 순교자 성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예비신자들도 함께 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이마원 기자

### ● 지곡 성당 세례식과 가족사랑 사진컨테스트 시상식



지곡 성당(주임=김혁태 신부)은 지난 9월 24일(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세례식을 가졌다.

2월 26일 예비신자 입교식 후 교리를 시작하여 8월 27일 성지순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주임신부님과 그의 면담과 집중교리를 마친 37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교리 개근자에게는 성경을 시상하였고 세례자 모두에게 목주를 선물하였다.

주임신부님은 본당사목을 시작한 후 처음 맞이한 세례식이어서 더욱 기쁘고 의미 있다며 이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교중미사 중에 가정분과에서 주최한 제 2회 지곡본당 가족사랑 사진 컨테스트 시상식이 있었다. 총 27 가족에게 성경과 메달 등 푸짐한 상품이 주어졌고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가족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수, 이마원 기자

### ● 조촌동 성당 본당의 날 성지순례

조촌동 성당(주임=박병준 신부)은 지난 9월 24일(주일) 본당의 날 행사로 미리내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약 250명이 참가하여 차 안에서의 기도를 시작으로 성지에 도착하여 11시 미사를 참례하고 각 구역, 반별로 준비한 점심식사를 나누면서 본당 공동체로서의 하나 됨

### ● 재미교포 김희자 자매 이주사목 기금 기탁

9월 27일(금) 성심학교 60주년 행사 차 미국 시카고에서 참석한 개신교 신도인 김희자 자매님이 (주)도성건설 박영춘 요셉 형제님을 통해서 5,000달러를 국제결혼자

**KIA** **기아자동차**  
 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신용입니다.  
 · 승용, 1톤, RV등 전차종 다양한 할부이벤트 (계약금 10만원, 최장 60개월 할부가능)  
 · 신차구입시 중고차를 최고가로 매입해드립니다.  
 · 타사 차량도 상담해드립니다.  
 ■ 차량상담 : 011-793-8686  
 ■ 야 간 : ☎(063)254-7226  
 담당:차장 김영기(스테파노), 정영주(요셉파나)

전북대병원 처방 조제전문  
**대 학 약 국**  
 (전북대병원 신전문 앞)  
 약학박사 : 김용기(베드로)  
 ☎(063)275-5700  
 FAX. (063)275-5760

**유\* 사랑 외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 우 성(스테파노)  
 서신동 E마트앞  
 ☎(063)253-6075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 - 초혼 · 재혼>  
 이종관(도민교)  
 ☎ 016-9612-9380 /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28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주최 : 마신부님(Rev. Brendan MacHale)  
 대학생 : 1/7~2/25(7주) 599만원(예정)  
 초 · 중생 : 1/7~2/4(4주) 409만원(예정)  
 문의 : (주)그린피스 E&T 02-569-1331

**서울방사선과 MRI센터**  
 MRI촬영(전신), C-T촬영(전신)  
 X-Ray 특수촬영 및 투시  
 칼라 초음파 검사, 유방 촬영  
 원장 : 방사선과 전문의 박인숙(아나타사이)  
 원장 : 방사선과 전문의 정진영  
 ☎(063)278-1312~3

대정항문병 전문병원  
**장 문 외 과**  
 치질 · 변비 · 유방크리닉  
 전문의 최 성 양(루기)  
 전문의 안 해 선(사도요한)  
 전문의 이 철 중  
 www.jangmun.com  
 대표전화☎(063)834-6000  
 익산 영등동 육교 밑

**16년 역사 수맥탐침대**  
 (임응송 신부님 수맥지도)  
 대표 : 이경복 바오로  
 주소 : 100-809 서울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1층 수맥탐침대 김영관  
 전주 1588-5335



## 성심여자 중·고등학교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성료



전주교구 학교법인 해성학원의 전주 성심 여자 중·고등학교(총교감=김영태 신부)는 지난 9월 23일 개교 60주년을 맞아 뜻 깊은 기념미사를 조정오 총대리 신부가 봉헌하고 이어서 기념식과 현판식 그리고 어울림 마당을 성대히 치렀다.

최규호 교육감, 이광철 국회의원, 신국중 교육위원회 의장과 해성 중·고등학교 교장선생 등 많은 인사들과 전국 4만여 명 동문들 중 1000여 명의 참석하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식 중에 장학재단 선포식이 있었는데, 동창회의 주관으로 설립된 이 장학재단은 총 2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모금하여 앞으로 여성 교육의 요람으로서 성심학교가 호남에 우뚝 솟을 발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어 본관인 규승관과 다목적 특별실인 춘화관의 동판 현판식이 거행되었다.

규승관은 초대 교장이었던故김규승 선생의 합자를, 춘화관은 개교당시 토지 기증과, 교사(敎舍)를 지어주신 故이춘화 선생의 합자로 명명한 것이다.

서승원 기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였다. 또한 아중성당 김셀린느 수녀님도 전별금 1,270,000원을 이주사목에 전달하였다.

홍보국 정리

### ● 우림 성당 본당의 날 야외미사 및 한마음 축제



우림 성당(주임=김진화 신부)은 지난 9월 24일(주일) 안

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BYC운동장에서 본당의 날 야외 미사 및 한마음축제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30분 우림 풍물패의 흥겨운 사물놀이 가락 속에 약 35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 1부 체육대회로 우(鴻)팀과 림(黻)팀으로 나누어 족구, 줄다리기, 풍선터트리기, 윷놀이, 터치볼, 종이면바꾸기, 박터트리기, 긴줄넘기, 장애물릴레이를 가졌으며 구역별로 한 점심식은 신부님께서 희사한 돼지 2마리로 모두가 흐트한 식사가 되었다. 2부 화합한마당은 구역(10개)별 장기자랑을 통해 마음껏 끼를 발산하였으며, 3세대가 함께한 가족에게는 푸짐한 선물 증정도 있었다. 3부 파견미사에서 김진화 주임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고통의 치유는 기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진정으로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 더 큰 은총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에 이어 이 행사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여 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였다.

김진성 기자

<p><b>강성호 피부과</b>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p>	<p>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b>진선미 꽃집</b> 범근배(방지거) · 박선자(루시아) 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청사이 ☎ 222-0004</p>	<p><b>세무사 최준철 사무소</b> 세무사 최준철(베네딕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113-12 2층 (송천우체국 옆) ☎(063)255-6200 FAX (063)255-6202 HP 011-9453-3547 e-mail : eratojun@hanmail.net</p>	<p>천주교 제주교구 <b>운전기사 사도회</b> 형제적 사랑으로 제주관광 및 성지를 정성껏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해주시 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차량 · 호텔 예약 문의 ☎(064)758-6476 H·P 011-697-6476</p>
<p><b>스스로 한의원</b> 원장 : 송승헌(토마), 최윤미(아가페) 적외선체열진단 운동치료 · 체형교정클리닉 ☎(063)254-1075 전주 E마트 야외주차장 앞</p>	<p><b>젬인아트</b> 전진아 (실비아)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p>	<p>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b>&lt;익산&gt; 한빛정형외과</b> 원장 : 김선규(라파엘), 이정미(글리아) - 밤10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응급전화 : 016-335-8175 (영등동 알리앙스 웨딩홀옆)</p>	<p><b>사랑을 얻기 위한 명상 (suscipe) 떼제 기도모임</b> 일시 : 매월 둘째 주(수) 오후 7시 30분(10월 11일) 장소 : 익산 성모병원 내 수녀원 대상 : 떼제 노래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미혼남, 녀 문의 : 011-420-0268 예수수도회</p>



교구장 일정

- 추계 주교회의(C.B.C.K) 10월 9일(월)~13일(금)
- 성 바오로 복지병원 미사 10월 14일(토) 오전 11시
- 성 요셉동산 양로원 미사 10월 14일(토) 오후 3시
- 견진 10월 15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지곡동

미사 · 행사 · 모임

- 가정성화 미사 10월 9일(월) 오전 11시 치명자산성당
- M.B.W 콘버벤자 10월 9일(월) 오후 7시 센터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군산 월례미사 10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제12기 자원봉사자 학교 10월 9일(월) 오후 2시 나운동
- 재무평의회 10월 11일(수) 오후 2시 교구청
- 묵상 관상기도 피정과 미사 10월 12일(목) 오후 2시 유아동 016-332-8789 가르멜 동정녀회
- 성모기사회 10월 14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특강 : 윤종일(디도) 신부
- 예신 월모임 10월 15일(주일) 오후 1시 30분 윤호관
- 익산 하나회 미사 10월 15일(주일) 오후 2시 부송동

제4회 전주교구 테마 영상작품 공모전

공모주제 : 선교, 복음, 봉사

접수기간 : 2006. 9. 11~10. 20 (우편접수는 당일소인 유효)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 : 10월말 예정 (교구 일정으로 조정)

작품접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전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j catholic.or.kr)

문의 : 285-0041



교육 · 피정 · 연수

-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 3단계 (전주지역, 김정교부, 임순남 무진장지구) 10월 11일(수) 오후 2시 삼천동 (군산지구) 10월 12일(목) 오후 2시 나운동 (익산 남,북지구) 10월 13일(금) 오후 2시 영등소라
- 새사제 연수 10월 12일(목) 오전 10시 센터
- 레지오 1단계 교육 10월 14일(토)~15일(주일) 나바위
- 천호피정 10월 14일(토)~15일(주일)
- 본당 사회복지분과 위원 김정교부 지구 순회교육 10월 15일(주일) 오후 3시 연지동

기타

- 천주교 전주교구 성가경연대회 일시 : 10월 14일(토) 오후 4시 장소 : 전주 중앙 성당 주최 : 천주교 전주교구 문의 : 교구사목국 285-0041~3 성가대연합회장 011-650-3477
- 생백합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생백합'은 교구 안에서 형제 자매와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공간입니다.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생백합'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정기구독 안내(285-0041 홍보국) - 1년 정기구독료 : 10,000원 후원 계좌 전북은행 505-13-0313012 천주교 유지재단

가정상담실 안내

가정문제를(가족문제, 부모·자녀문제, 부부문제, 혼인강좌, 자연가족계획법등) 전화로 상담해 드리며 일하시면 개인 상담도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나누어요 문의 : 281-0142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주지방의 성지 고지도(古地圖) 수건 판매



교구 사목국에서 '전주지방의 성지 고지도(古地圖) 수건'을 제작, 성지를 찾아오는 순례자들과 본당 행사의 기념품용으로 판매합니다. 본 지도는 정조(1776~1800)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주지방의 고지도로서 현재의 지형과 많이 다르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고급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문의 : 교구청 사목국 285-0041

성 바오로딸 수도회 '책 바꿔보는 날' 캠페인

'잡자는 책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성 바오로딸수도회는 10월 전교의 달을 맞아 '책 바꿔보는 날' 캠페인을 벌입니다. 교회내 출판사책 5권을 가져오시면 바오로딸 신간 1권으로 교환해 드리고 모아진 책은 복지기관, 교도소, 공소, 군부대 등에 기증합니다. (성서, 기도서, 성가책, 잡지류는 제외) 장소 : 전주 바오로딸 서원 / 252-3398 기간 : 10월 9일~31일

**10월 좋은 영화-베르나데트의 노래**  
일 시 : 10월 11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상영시간 : 158 분  
관람비 : 천원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기적과 발현의 그늘에 가려졌던 벨라벳타 성녀의 연약하면서도 강인하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유머에 넘쳤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했던 삶을 보여준다.

<2007년도 군장대학 사회복지계열 가톨릭관 신입생 모집>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이상, 가톨릭 신자(예비자 포함)
  - ① 성직자·수도자
  - ② 가톨릭사회복지시설 근무자
  - ③ 가톨릭관련기관 근무자
  - ④ 일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근무자
  - ⑤ 사회복지관련 공인 봉사경력이 있는자
  - ⑥ 4대보험 가입 직장 근무자나 자영업자
- 제출서류 및 양식 : 군장대(www.kunjang.ac.kr) 전주교구 사회사목국(www.jcatholic.or.kr)에서 다운로드
- 모집인원 : 30명 / 4.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0월 2일~10월 31일
- 수업장소 : 전주사랑의 집
- 수업방법 : 주3회(월·수·금 오후 6시) / 원격(사이버)교육/자율학습
- 수업연한 및 장학특전 : 2년(4학기) / 전원특별장학(등록금 : 학기당 130만원)
- 문의 : 450-8338, 011-657-6538 채왕석 교수 / 450-8090, 011-637-8745 오교성 교수

# 북전주 지구 본당 소식

## 덕진

주임신부: 272-5303 보좌신부: 252-0383 주임신부: 양경배  
 수녀월: 272-5304 사무실: 272-5302 보좌신부: 송영석  
 유커월: 252-0384 F A X: 271-1937 서목회장: 임성진

- ◎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 ◎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동체
- ◎ 오늘은 연중 제 27주일입니다.
- ◎ 축! 혼배 : 21일(토) 후 12:30 신랑 - 임성진, 강순이의 자 임해옥(요셉) 신부 - 임재영, 홍종희의 자 임화봉
- 1. 바오로 성서 대학 : 화요일 - 10일(화) 후 8시, 목요일 - 12일(목) 후 2시
- 2. 병자봉성체 : 13일(금) 후 2시 ※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3. 센터 신축기금 신입 : 신입 누계 - 381세대 : 414,441,000원 ※ 감사합니다.
- 4. 금주모임 : 요셉회, 성모회, 대건회 - 교중미사 후
- 5. 주간모임 : 카리마스 단합대회 - 14일(토)
- 6. 차주청소 : 14일(토) 후 2시 - 프란치스코회, 그리스도의 모친 Pr.
- 7. 지역봉사활동 : 14일(토) 후 3시 - 프란치스코회

## 동산

주임신부: 212-3232 사무실: 212-3231 주임신부: 송년홍  
 F A X: 212-3722 수녀월: 212-3233 서목회장: 육문용

- ◎ 우리본당은 : 기도하는 본당, 선교하는 본당, 재미있는 본당, 함께하는 본당
- ◎ 성경, 성가, 기도서를 지침 하시고 성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1. 평일미사, 주일미사에 참례 합니다.(구역별 참석수 확인)
- 2. 쉬는교우를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하기 : 주간 -4,125단, 합계 - 672,522단
- 3. 금주전례 : 7구역 3,4반
- 4. 차주전례 : 8구역 1,2반
- 5. 차 나눔 봉사 : 금주-구세주의 모친, 차주-순교자의 모후
- 6. 금주모임 : 안나회-10/8(주일), 사목회, 복사단자모회-10/10(화), 바오로회-10/11(수), 제대회-10/12(목), 모이세회-10/13(금), 동령회-10/14(토)
- 7. 차주모임 : 요셉회-10/19(목), 전례회-10/20(금)

## 삼례

주임신부: 291-3875 사무실: 291-3874 주임신부: 이세후  
 F A X: 291-1678 수녀월: 291-3876 서목회장: 강영만

- ◎ “네 집 안방에는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네 밥상 둘레에는 아들이 올리브 나무 햇순을 갈구나.” (시편128,3)
- 1. 성령묵상 일곱째주 : 9일(월) 후 7시 - 그리스도 안의 변화 (안득수 마리오 형제) ※ 일곱주간 삶의 봉헌과 파견미사에 모두 함께합니다.
- 2. 어르신 성경학교 : 10일(화) 전10시 - 9원 9권, 10권 받아가세요.
- 3. 한내골 성경학교 : 11일(수) 전10시 - 남녀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 4. 함께하는 여정 3단계 : 11일(수) 삼천동 성당 - 후2시
- 5. 가을 환경정리 : 14일(토) 아침 6시 미사 후 성당주변청소.
- 6. 사목회 : 13일(금) 후 7시 30분, 구역반장 연수회 - 14일(토) 후 7시
- 7. 금주모임 ① 요셉회-전9시 ② 재속 형제회-후2시 ③ 성모회-후7시 30분 ④ 아가페회 11일(금) 전11시
- 8. 차주모임 ① 빈첸시오회 ② 성소후원회 ③ 반석회 ④ 대건회 각 전11시
- 9. 성당청소 : 우성A ※ 세대 당 한분씩 꼭 참여바람.
- 10. 차주전례 : 교중미사-김은정, 독서-양진용, 전상순, 봉헌-한충길 부부, 기도-4구역

## 숲정이

주임신부: 276-1320 사무실: 252-7366 주임신부: 한복성  
 보좌신부: 252-1606 F A X: 274-9692 보좌신부: 전문근  
 수녀월: 252-9567 서목회장: 김중윤

- 1. 금주모임 : 요셉회, 울프레야 - 공식미사 후
- 2. 차주모임 : 성모회, 아나빈회 - 공식미사 후
- 3. 황로사 수녀님 휴가 : 9일(월)~15일(주일)
- 4. 사무장 휴가 : 9일(월)~13일(금)
- 5. 함께하는 여정 3단계 교육 : 11일(수) 후 2시~5시 삼천동성당
- 6. 하상회 : 13일(금) 후 8시
- 7. 10월 산행 : 23일(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8. 2007년 성당달력에 광고 내실분(1,000부 발행) :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 9.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 9월24일 현재 399세대 557,710,300원 봉헌액 - 300,772,480원 계속해서 많은 성원 바랍니다.
- 10. 본당청소 및 차주 미사안내 : 천상의 모후Pr.(구세주의 모후Cu.)
- 11. 금주전례 : 해설 - 이옥(바오로), 독서 - 장명환, 권정자
- 12. 차주전례 : 해설 - 전현숙(미디어), 독서 - 홍화선, 김화중

## 상삼례

주임신부: 291-0790 사무실: 291-0832 주임신부: 김준호  
 수녀월: 291-0833 의산공소: 291-3380 서목회장: 이상섭

- ◎ 10월은 목주기도 성월, 전교의 달입니다.
- 1. 금주모임 : 요셉회, 구역(안)장회 - 교중미사 후
- 2. 차주모임 : 울프레야 - 교중미사 후
- 3. 병자봉성체 : 13일(금) 후 2시
- 4. 예비신자 교리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
- 5. 음향설치헌금 : 최병윤(방지희) 30만 ※ 감사합니다
- 6. 2007년도 월력광고 내실 분 사무실 신청 받습니다.
- 7. 금주전례 : 주일-해설 김복숙, 독서 이진수, 황선희, 기도 구원의증거자 봉헌 후동1반, 화 - 평화의모후, 수-성교회의 모친, 금-복되신동정녀
- 8. 차주전례 : 주일-해설 이상섭, 독서 허재호, 정은애, 기도 죄인의의탁 봉헌 후동2반, 화-신자들의도움, 수-죄인의의탁, 금-루르드성모
- 9. 하느님 말씀을 듣는 성서통독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
- 10. 성당청소 : 사도의모후, 신비로운장미 ※ 수고하셨습니다.

## 솔내

주임신부: 254-2778 보좌신부: 276-2779 주임신부: 박종근  
 사무실: 254-2777 수녀월: 253-2776 보좌신부: 송연경  
 선교반과사무실: 276-2780 FAX: 277-2780 서목회장: 최창수

- ◎ 2007년도 달력 광고 내실 분 15일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 ◎ 사목회 정기총회 : 10일(화) 저녁미사 후 ※ 사목회 임원 전원 각 단체장 구역반장 전원 참석바랍니다
- ◎ 15일(주일) 10시 30분 미사는 동산동 본당 주임신부님께서 집전하심
- 1. 금주모임 ① 애령회 - 8일(주일) 전 10시 ② 전일교우 환영식 - 8일(주일) 교중미사중 ③ 요한회 - 8일(주일) 교중미사 후 ④ 전례분과 모임 - 8일(주일) 교중미사 후 ⑤ 구역반장 월례회의 - 11일(수) 11시 15분 ⑥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 11일(수) 오후 1시 30분 출발
- 2. 차주모임 ① 안나회, 하상바오로회 - 15일(주일) 교중미사 후 ② 청소년분과 모임 - 15일(주일) 저녁미사 후 ③ 여성분과 모임 - 17일(화) 09시 50분 ④ 성모회, 마르타회, 모니카회 - 17일(화) 10시 30분 ⑤ 울프레야 - 17일(화) 저녁미사 후 ⑥ 풍소미사 - 18일(수) 19시(본당 저녁미사는 없음)
- 3. 금주전례 : 해설 - 배관철, 독서 - 오영록 부부
- 4. 차주전례 : 해설 - 서정식, 독서 - 전세관 부부
- 5. 금주청소 : 10구역 - 14일(토) 전 10시

## 송천동

주임신부: 254-8560 사무실: 274-1004 주임신부: 나국영  
 F A X: 254-8591 수녀월: 254-1142 보좌신부: 염태성  
 서목회장: 유장준

- 1. 오늘의 모임 : 대건회, 바오로회, 돈보스코회 - 교중미사 후.
- 2. 사목회 : 8일 저녁미사 후 ※ 사목회 임원 참석 바랍니다.
- 3. 구역장 반장 월례회 : 11일 전11시.
- 4. 순교자헌양회 성지순례 : 15일 전8시30분 남양성모성지, 회비 10,000원.
- 5. 예비교우를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요일 - 후 8시, 주일반 - 전9시.
- 6. 보좌신부님 피정 : 16-20일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바랍니다.
- 7. 예수마을 피정 : 27-29 해월리 피정의 집.
- 8. 아가페회 소개 : 매월 셋째주 토요일 후8시. ※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원하는 자모들의 모임입니다. 많은 가입 바랍니다. ※ 회장 - 소옥정 데레사 016-808-9678.
- 9.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신입 인화신 분 신입하시기 바랍니다.
- 10. 금주본당청소 : 22구역 7일 전10시.

## 팔복

주임신부: 211-8044 사무실: 211-8043 주임신부: 최중수  
 F A X: 211-8045 서목회장: 유태희

- ◎ 기도하고, 나누면서, 선교하는 공동체.
- ◎ 매주일 저녁 8시 “함께하는 여정” 반별 모임.(예비자, 반원)
- 1. 함께하는 여정 3차 교육 : 11일(수)오후2시~5시, 18일, 25일, 31일(화) 오전10시 삼천동성당
- 2. 사제연례피정 : 16일(월)~20일(금). 미사를 말씀의 전례로
- 3. 금주전례 : 해설 최순자(비비안나), 독서 정의관(베드로), 김영주(우슬라)
- 4. 차주전례 : 해설 이경식(바오로), 독서 최동춘(엘라시오), 조경(마리아이로사)
- 5. 금주모임 ① 프란치스코회, 대건자매회 : 교중미사 후 ②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모임 : 12일 오후 8시
- 6. 차주모임 ① 요셉피사회 : 오전 9시~ ② 작은형제회 : 교중미사 후.
- 7. 차주 청소 및 중식담당 : 1구역 4반, 10월 14일(토) 오후 2시



## ▶ 성모님에 대한 합당하고 올바른 신심

성모 신심(信心)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공경과 그 표현입니다.

성모님에 대한 합당하고 올바른 신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신앙 생활을 더욱 알차게 함으로써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바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성모 공경은 근본적으로 신(神)인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일체인 하느님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 묵주기도 성월의 유래

묵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묵

주기도로 승리를 거둔 레판토 해전의 날(10월 7일)을 기념하여 교황 비오 5세가 이 날을 묵주기도의 기념일로 정하였다. 그후 1883년 발표한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수프레미 아포톨라투스』(Supremi Apostslatus)에 의해 10월이 묵주기도 성월로 설정되었다.

### 묵주기도 默珠祈禱 rosary 의 유래

묵주기도(로사리오 rosario)의 뜻은 '장미꽃다발' 혹은 '장미 화관'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매괴', 혹은 '매괴 신평'이라고 했습니다.묵주기도의 기원은 초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교인들은 자기자신을 신(神)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쓰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초대 교회 신자들에게 전해져 신자들은 기도 대신 장미꽃을 봉헌하곤 했다. 특히 박해 당시 신자들은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 끌려가 사자의 먹이가 될 때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썼는데 이것은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데 합당한 예모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래는 이집트 사막의 은수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시편 150편을 매일 외웠는데, 작은 돌맹이나 곡식 낱알을 머리에 쓰는 관처럼 둥글게 엮어 하나씩 굴리며 기도의 횟수를 세었다고 한다. 이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편 대신 '주님의 기도'를 150번 바치기도 했으며, 수를 셀 때 불편하였기에 열매나 구슬을 150개를 노끈이나 가는 줄에 꿰어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런 관습들이 묵주기도를 탄생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12세기에 삼종기도가 널리 보급되면서부터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매우 깊어져 주의 기도 대신 성모송을 50번이나 150번씩 외우기도 했는데, 이를 15단으로 나누어 성모 영보, 예수 성탄, 예수 부활, 예수 승천 등과 관련시켜 묵상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묵주기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3세기부터는 영광송이 삽입되었다.

교회는 성모 마리아가 루르드(1858) · 파티마(1917) · 보랭(1932~1933)의 발현에서 묵주 기도를 특별히 권장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2년 10월 16일에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Rosarium Virginis Mariae)를 발표하고,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를 '묵주기도의 해'로 선포하여 특별히 이 기간에 묵주기도를 더욱 자주 바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재위 24주년인 이날 발표한 교서에서 묵주기도를 '복음의 요약'이라고 부르면서 묵주기도가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관상할 수 있는 탁월한 수단이며 평화와 가정을 위한 강력한 기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묵주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의 다섯 가지 신비를 묵상하는 '빛의 신비'를 추가하고, 빛의 신비를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 사이에 바쳐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묵주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며 성모 마리아와 함께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감사드리고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비는 기도로서 우리를 예수님과 일치시켜주는 좋은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로 많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사랑에 가득 찬 마음으로 성모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또한 성모님께 사랑스런 말을 속삭이면서 성모님이 보여 주시는 그 신비들의 놀라운 장면들을 응시하며 언제나 새롭고 아름다운 그 정경들을 바라봅니다.